

이홍재의 세상만사



논설고문

지방선거에서 그는 졌지만 이겼다. 비록 당장의 승리는 놓쳤지만 많은 박수를 받았다. 낙선하고도 세간의 주목을 받는 이. 대구의 김부겸이다. 시민 10명 중 4명이 그를 찍었다. 40.3%. 여당 텃밭에서 야당 간판을 걸고 얻은 득표율. 놀라운 수치다.

영남 지역에서 기호 2번. 그것은 호남에서의 기호 1번과 같다. 애초 싸움이 성립되지 않는다. 죽을 짓을 뻔히 알면서 죽으러 가다니. 누가 봐도 바보나 하는 짓 아닌가. 바보의 길. 노후엔 걸었던 길. 그 길을 김부겸이 묵묵히 걸고 있다.

지난번에도 그랬다. 2년 전 2012년 총선 때. 당시 3선까지 안겨 준 경기 군포 지역구에 미련도 있었으련만. 대구 수성갑에 내려가 이한구 의원과 맞붙었다. 낙선했다. 그때도 40% 넘게 지지를 받았다.

그때나 지금이나 무소속으로 출마했다라면 어땠을까. 결과가 달라졌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해서 대구의 그런 정서를 몰랐을 리는 없다. 하지만 그는 쉬운 길을 버리고 어려운 길을 택했다. 그리고 앞으로는 죽~ 가겠다고 한다. 그 험난한 가시밭길.

이번 도전이 결코 마지막이 아니라는 거다. ‘인생 삼세판’ 아니냐고 그는 말한다. 그동안

대구에서 두 번 실패했지만 또 대구에서 도전할 거란다. 2년 후 총선 때 보자는 거다. 대구 시민들도 매우 호의적이다. 벌써부터 그를 대통령감으로 키워야 한다는 말까지 들린다.

대구에 김부겸이 있다면 광주엔 누가 있다. 이정현이다. 그는 뺏속까지 새누리당 사람이다. 광주는 새누리당의 불모지. 아니 여당의 무덤이다. 그런 곳에서 그는 온갖 고난과 설움을 겪으며 평생 한길을 걸어 왔다.

‘바보의 길’ 걸었던 사람들

개인적으로는 이정현을 한두 번 만나 본 적이 있다. 잠깐이었지만 말을 참 잘한다는 인상을 받았다. 신언서판(言言書判)이라 했던가. 하지만 말만 번지르르하면 듣는 이에 따라 거부감을 가질 수도 있다. 그에게서는 그러나 그런 게 느껴지지 않았다. 아마도 ‘호남 사랑’의 열정과 진정성 때문이 아닌가 싶다.

그가 박근혜 대통령과 인연을 맺은 사연도 이와 무관치 않다. 2004년 총선에 혈혈단신(孑孓單身)으로 나섰을 때다. 대통령(당시엔 한나라당 대표)이 직접 전화를 걸어 왔다. 전화를 받은 그는 처음엔 “누가 대표를 사정하는 것 아닌가 생각했었다”고 한다.

대구의 김부겸·광주의 이정현

“직접 가 봐야 하는데 너무 오라는 곳이 많아 못 가서 미안합니다. 선거 끝나고 나서 받아라도 한 끼 같이 합시다.” 밥 한 끼 하자는 약속은 얼마 가지 않아 지켜졌다. 총선 직후 마련된 자리에서 이정현은 10분 넘게 열변을 토했다. “한나라당의 호남 포기 전략을 포기해 달라”고.

당시만 해도 그는 총선에서 처참하게 패배한 일개 당원에 불과했다. 그런 그의 말을 대통령은 꼼꼼히 메모까지 해가며 들었다. 그리고 하는 말. “어쨌든, 말씀을 그렇게 잘 하세요.” 며칠 후 그는 당 수석 부대변인에 임명된다. 순수 당직자 출신인 그가 나중에 한나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된 것도 그런 인연 덕분이었다.

이정현의 시작은 미미했다. 지난 1995년. 광산 제2선거구에 민주당 시의원 후보로 출마했다가 떨어졌다. 두 번째 도전은 ‘광주 국회의원’이었다. 지난 2004년 14대 총선 때. ‘광주 서구’에 한나라당 후보로 출마했다. 하지만 720표(1.03%)를 얻는 데 그쳤다. 1%대의 처참한 결과였다.

그의 도전은 19대 총선에서도 계속된다. 2012년. 다시 ‘광주 서구’에 출마표를 던진 것이다.(김부겸이 경기 군포를 포기하고 대구

로 갔던 바로 그때였다.)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수도권 공천’과 당선도 충분히 가능했다. 하지만 그는 광주를 택했다. 그리고 39.7%의 표를 얻었다. 새누리당이 호남에서 얻은 역대 최고 성적이었다.

이정현과 김부겸은 공통점이 많다. 우선 나이가 같다. 1958년생. 만 56세다. 걸어온 길도 비슷하다. 바보의 길. 우직하리만큼 가시밭길을 헤쳐왔다. 떨어지고 또 떨어지면서. 여당 텃밭에 언젠가는 야당의 깃발을 꽂아 보겠다는 김부겸. 야당 텃밭에 여당의 깃발을 꽂고야 말겠다는 이정현.

‘삼세판’ 고향에서 도전하길

두 사람은 2011년 나란히 책을 펴낸 바 있다. ‘나는 민주당이다’. 이는 김부겸의 자서전 제목. 민주당을 절대 떠나지 않겠다는 작심을 제목에 담은 것이다. ‘호박국 대변인-진심이면 통합니다’. 이것은 이정현의 자전세이집 제목. ‘호박국’은 호남·박근혜·국민을 뜻한다. 지역주의의 절친 악연을 끊고자 하는 의지가 읽히는 책 제목들이다.

최근 청와대 홍보수석에서 물러난 이정현의 거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화부장관

등 입각설이 흘러나오기도 한다.(문제가 많은 문장극 총리 지명을 철회하는 대신 그를 국무총리로 지명해도 좋을 듯한데.) 일부에서는 7·30 재보선 출마를 점치기도 한다. 그가 출마를 한다면 어디로 나갈까. 거물급들의 출전이 예상되는 ‘서울 동작을’ 지역이 거론된다.

하지만 그를 서울 동작에 뺏길 수는 없다. 무슨 말이나 하면 이번에 그가 다시 호남 지역에서 출마해야 한다는 얘기다. 우선 이용섭 의원의 사퇴로 ‘광주 광산’ 지역구가 비어 있다. 광산은 과거 그가 시의원 도전으로 인연을 맺은 바 있는 지역이다.

어제 대법원에서는 김선동 의원의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되었다. 따라서 ‘순천·곡성’ 지역구도 주인을 찾고 있다. 곡성은 이정현의 고향이기도 하다. 광주나 곡성 어디든 좋다. 그가 이번에 고향에서 출마한다면 세 번째 지역구 국회의원 도전이 된다. 그야말로 ‘삼세판’이다.

이정현은 여론에서 드물게 보는 호남의 인재다. 그는 그동안 스스로 커 왔다. 이제是我们가 그를 키워 줘도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언젠가 여론의 이정현과 야권의 김부겸. 그들이 더 큰 선거에서 맞붙게 될 날이 있기를 기대한다.

홍명보號 전술의 열쇠... “날아라 성용”

월드컵 한국팀 아전 사령관 광주의 아들 기성용 스토리

원손으로 국기에 대한 경례. 원숭이 세리머니. “답답하면 니들이 뛰단가” 발언. 최강희 전 대표팀 감독과의 갈등- ‘축구 만 잘하는 문제야’ 기성용.

하지만 가까이서 보면 다르다. 지난해 텔런트 한해진과의 결혼식 축의금 6000만원을 월드컵전에 기부했고 선수들과 함께 유니폼 판매를 통한 기부도 꾸준히 하고 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휴식 기간엔 팀 동료들과 함께 지역 병원을 방문해 환자들을 격려하는 일도 게을리 하지 않는다.

자존심이 유독 강한 성격에 경기가 풀리지 않는 날엔 그라운드에서 홀로 남을 때까지 훈련하고 한국에 있는 아버지에게 전화해 눈물을 쏟기도 한다.

가끔씩 분출되는 욕하는 성격은 아버지를

닮아서다. 기성용의 아버지는 광주시축구협회 기영옥 회장. 금호고와 전남대에서 수비수로 활약했던 기씨는 1982년 국민은행 축구팀에서 은퇴하고 금호고와 광양제철고 감독을 맡아 전국대회 20회 우승을 일군 명장이다. 어머니 남영숙씨도 육상선수 출신으로 기성용은 어머니의 패혈증과 아버지의 축구 유전자를 타고난 선수다.

1989년 광주시 광산구에서 출생한 기성용은 순천 중앙초등학교 6학년이던 지난 2001년 제13회 차범근축구상 대상을 받을 만큼 뛰었다. 소년체전 우승과 MVP. 한 해 18골 12도움의 놀라운 활약 덕분이었다.

기성용은 광양제철중 1학년 때는 호주로 축구유학을 떠났다. 왜 축구 불모지나 다름없는 호주였을까? 기영옥씨는 “성용이를 가르치면 큰 선수가 되겠다는 확실한 판단이 컸다. 그때는 브라질이 대세였는데 나는 영어권 선진국으로 보내야겠다고 생각했다. 영어만 잘 배우면 축구계에서 얼마든지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말했다.

기씨의 판단은 옳았다. 기성용은 4년 6개월간 호주 축구유학을 한 뒤 한국에 돌아와 금호고에서 이승기(전북 현대)와 함께 전국대회 우승을 휩쓸며 스타로 성장했다. 고교 졸업 후 FC 서울, 스코틀랜드의 셀틱을 거쳐 2012년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스완지 시티에 입단했고

을 시즌 선덜랜드의 에이스가 됐다.

한국 축구는 브라질 월드컵에서 첫 원정 8강을 꿈꾸고 있다. 평가전에서 아프리카 튀니지와 가나에 연패했지만 평가전은 평가전일 뿐. 약점 보완에 성공하면 오히려 약이 될 수도 있다.

이번 월드컵에서 기성용은 한국축구 전술의 핵심 키(key)다. 키 187cm 79kg. 어지간한 장신 공격수나 중앙수비수 못지않게 체격이 좋다. 거기에 탄탄한 기본기, 넓은 시야, 왕성한 활동량까지 갖췄다. 팀에서 포지션은 수비형 미드필더. 상대팀의 공격 흐름을 끊고 수비에서 공격으로 역습을 풀어 나갈 때 불 배급의 타 임을 정하는 경기의 조율자 역할을 한다. 홍명보호 전술의 구심점이자 경기 흐름을 지배할 사실상 그라운드의 사령관이다.

팀이 리드를 당하거나 위기에 처했을 때 공격형 미드필더로도 전환이 가능하다. 실제로 그의 소속팀 선덜랜드는 골짜리로 떨어지자 기성용을 공격형 미드필더로 기용하는 파격 전술로 승승장구해 EPL 강등권을 탈출했다. 눈빛만 봐도 통하는 절친 구자철과는 언제든 스위치 플레이가 가능하다.

기성용의 또 다른 역할은 세트피스 전문 키커. 홍명보 감독은 “세트피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순간 집중력이다”며 순간 집중력을 높여 실점을 막고 오히려 ‘16강 진출의 해법’으로 활용하기 위해 집중적으로 가다듬었다. 한국팀

의 세트피스도 기성용으로부터 시작된다. 정점인 강력하고 정확한 킥력을 활용해 프리킥과 코너킥을 전담할 것으로 보인다. 1990년 이탈리아 월드컵에서 황보관의 캐논샷처럼 세트피스 상황에서 감쪽 공을 기대해 볼만 하다.

세계 언론도 기성용을 주목하고 있다. 미국 CNN은 월드컵에서 네이마르, 디에고 코스타 등과 함께 ‘주목할 만한 선수 32명’의 명단에 올렸다. 영국의 데일리메일은 “후방에서 불을 배급하는 능력이 좋아 마이클 에시엔을 연상시킨다며 한국의 핵심 전력이다”고 평가했다.

기성용은 스스로 별명을 ‘기라드’로 지었다. 우상인 리버풀의 심장 스티븐 제라드처럼 되고 싶어서다. 이제 한국팀의 심장이 된 기성용. 박주영 손흥민 없이 공을 넣기 힘들지만 기성용 없이는 경기를 할 수가 없을 만큼 존재감은 절대적이다.

브라질 월드컵의 날이 밝았다. 황금세대를 주축으로 4강 이상을 넘보는 벨기에, 철벽 수비 러시아, 아프리카의 강호 알제리와 함께 가장 ‘HOT’한 H조. 독일의 영웅 베케바우어가 “강한 자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자가 강한 것이다”라고 말한 것처럼 한국이 H조의 강자들을 꺾고 16강을 넘어 8강에 진출할 수 있을지. 모든 것은 광주의 아들 ‘핀을 댄’ 기성용의 발끝에 달려있다.

/유재관기자 jkyou@kwangju.co.kr



1989년 광산구 출생...차범근 축구대상 받으며 두각

호주 축구유학 후 금호고 - FC 서울 - 빅리그로

월드컵서 국가대표 공·수 조절, 세트피스 전담 키커



**노안(老眼)도
치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광고를 보면서
돋보기를 쓰고 보시나요?
아니면, 쓰던 **안경**을 벗고 보시나요?

해당 사항이 하나라도 있다면
당신은 노안 치료 대상자입니다
노안시력교정수술로
돋보기, 안경 없는 편한 생활이 가능 합니다.

1566-9988

수술
방법

· 라식수술을 하듯 각막을 깎아 초점을 맞춰 노안해결
· 노화된 수정체를 인공수정체로 바꿔서 백내장과 함께 노안해결
· 각막에 초정밀 미세 인레이를 삽입하여 노안해결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맞은편 **눈모양빌딩**을 찾으세요

신로내용 노안라식/Karma Inlay를 이용한 시술/다초점 인공 수정체 /레스토렌즈 / 레인드를

신세계백화점



박원광주안과



전국최대 단비플라워 농가대표

단비플라워



죽화화환3단



근조화환3단

**365일 연중무휴
가격변동 없음!**

경조화환 7만원 시외 8만원

전화. 062)233-9961 Fax. 062)672-9961

농협 (박배성) 302-0316-649511

앞으로의 금융!
신협이 함께 합니다.

특보

희망가득전환대출

※대상 : 아파트 담보대출

여신전문기관

(사금융 또는 캐피탈, 파이낸셜, 저축은행 등)

**“고금리대출”을
신협 “저금리대출”로
전환하세요!**



골목상권자영업자
특례보증대출 연**2.0%~**

광주원광신협

대표전화 1599 - 4474